

공중보건 의사 감소에 따른 취약지 의료공백, 신속한 추경 예산으로 최소화

-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긴급대체인력 150명 채용, 시니어의사·
지역필수의사 152명 추가 확충 추진

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(금),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 의사(이하 ‘공보의’) 감소에 따른 대응현황과 '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,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
【 현장방문 개요 】

- 일시/장소 : '26.4.17.(금), 14:00~16:00 /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, 방림보건지소
- 참석자 : (기획예산처) 복지안전예산심의관, 연금보건예산과장 (보건복지부) 건강정책과장 (강원도) 공공의료과장, (평창군) 보건의료원장, 보건정책과장

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금년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,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.

* 신규 공보의(의과): '25년 250명→'26년 92명 / 공보의 총원(의과): '25년 945명→'26년 587명

※ [참고]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'26.3.13), "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 올해 공중보건 의사 급감, 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"

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'26년 추경예산에서 ①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(+150명)하고, ②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(+20명), ③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(+132명)의 지원 인원을 확대하였다.

< '26년 추경예산 반영 주요 내용 >

①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(신규) : '26년 21억원

- (사업내용)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의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한시대체인력 채용 지원
- (지원인원)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양성 157명, 한시 대체진료인력 150명

② 시니어의사 지원 : '26년 76억원 (+4억원)

- (사업내용) 지역의료기관, 보건소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
- (지원인원) ('25년) 110명 → ('26년 본예산) 160명 → ('26년 추경) 180명

③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: '26년 37억원 (+9억원)

- (사업내용)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지원
- (지원인원) ('25년) 96명 → ('26년 본예산) 136명 → ('26년 추경) 268명

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**평창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인 지역 진료여건 조성 방안**을 논의하였다. 참석자들은 지역 일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·장비보다 **의료인력의 유·무**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, **시니어·지역필수의사 유입 지원**과 순회진료 등 **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안**을 집중 검토하였다.

이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투입을 준비중인 **방림보건지소**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. 강원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**대체인력**을 투입하고, 책임의료기관과의 **원격협진 네트워크**를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.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마련 전이라도 **확보된 국비**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, 의료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였다.

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“공보의 감소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인 만큼, '27년부터 신설될 ‘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’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·지역필수의사 확충, 원격협진 등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아울러, “의료 취약지를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의 근본적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 수요-공급의 핵심기제인 연 130조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만큼,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.”고 강조했다.

정부는 이번 현장방문 점검결과 및 의견청취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연금보건예산과	책임자	과 장	이중진 (044-214-2930)
		담당자	사무관	황보환 (hbh1989@korea.kr)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은정 (044-202-2810)
		담당자	서기관	김한얼 (early@korea.kr)